궁금했어요

곧 세례 받을 날이 다가오는데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세를 미루어야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전혀 고민도 없이 그렁저렁 세례에 응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느님을 알려하는 마음, 그분 사랑을 깨달아 느끼려는 원의가 고맙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영혼의 목마른 갈증이 무척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럼에도 인간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일에 너무 '머리'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닐지, 우려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히브 11,1)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 '말씀대로 믿는 일'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가장 귀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풀어 얘기하면 하느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순서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꼭 말씀대로 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세례인입니다.

우선 세례를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기도를 하세요. 의심을 떨쳐낼 힘도 청해보세요. 염려하고 있는 "어리석고 비논리적이고 근거 없는" 인간의 생각까지도 봉헌하세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심어주시어 의심에서 벗어나 감사와 찬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앞당겨,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소곤소곤 아하 그런거군요』, p.36~37, 장재봉 신부 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16|2| 제76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인간의 두 가지 길

(시편 1,1-6)

시작 성가

진 행 자 • 가톨릭 성가 3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 행 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자리에 오시어 저희의 무딘 마음을 깨우쳐 주소서
– 주님, 저희 모두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어 함께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 행 자 • 한 분이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을 읽어 주십시오.

1, 1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예 수 님
안 에 서

2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3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4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5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6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진 행 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 행 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 행 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두 가지의 선택에서 갈팡질팡하고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었구나’ 하고 하느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다면 각자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 행 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난 화가가 위대한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선한 얼굴의 양치기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가는 목동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결과는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초상화를 자기 집에 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화가는 인간의 내면에는 선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악마의 모습을 그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고생 끝에 저주와 분노로 가득 찬 한 죄수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림을 완성한 화가가 두 그림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나란히 놓았을 때, 그림을 훔쳐보던 죄수가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가 의아해 하자, 죄수는 천사와 악마의 모델이 모두 자신이라는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사의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마의 존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백지 같은 하얀 마음에 선과 악을 그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백지에 무엇을 그려 넣을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올 한해의 새 백지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그려 넣으면 좋을까요?

그리스도
예 수 님
안 에 서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 행 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 행 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 침 기 도

진 행 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 침 성 가

진 행 자 • 가톨릭 성가 3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2,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사귐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 명서동본당 명곡구역 형제반 강민구 안드레아 -

봄부터 담장을 따라 빨간 장미꽃이 피어나는 창원 명서동 본당(주임신부 유해욱 요아킴)은 하느님의 크신 은총 아래 함께 기도하며 우애를 쌓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지난해 사림동본당이 봉헌되어 많은 세대가 분가했지만, 독실한 신앙과 친목을 바탕으로 25주년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명서동본당은 예전부터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애, 그리고 성가대를 포함한 제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성모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신자들로 구성된 '라방 성모 공동체'가 있어 이주 노동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본당의 8개 구역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며 친교를 나누고 있는 명곡구역은 크게 자매반과 형제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월례 모임을 갖고 수시로 번개모임을 가져 가족처럼 친교와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반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엠이(M.E)를 다녀와 부부간 일치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모임에도 부부가 함께 참석합니다. 올해 초부터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앙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재미있는 일상,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낮 반과 형제반이 함께 언양본당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활발하고 유쾌한 우리 소공동체에도 나름의 고민은 있습니다. 주일미사는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반해 소공동체 모임에는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카리스마 그 자체이신 구역장님 이하 반장님들과 반원들은 교중미사 후에 직접 그분들을 대면하기도 하고, 유선연락을 통해서 소공동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또한 '사귐과 나눔과 섬김'의 초대 교회의 정신을 살아가기 위해 구역 내 외짝교우나 냉담교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합니다. 한동안 냉담하신 교우들을 찾아뵈어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시겠다는 확답을 받을 때는 신앙 안에서 삶을 나누는 소공동체의 큰 기쁨을 몸소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친교도 돈독히 해나가는 가운데 본당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교활동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짐을 유념하면서, 자주 만나고 인사하며 대화하면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안에서 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는 정겹습니다.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서로가 의미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공동체가 바로 그러하기에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교우, 좋은 이웃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